

2018년 11월 23일, 제주시 삼도1동 김순택 씨 댁, 이현정 조사.

김순택(남, 1944년생, 제주시 삼도1동)

- 제주시 영평 상동(가시나물) 출생하여, 제주4·3사건 때 고향을 떠나 제주시내로 피난와 삼도1동에서 거주하고 있다.

• 줄거리: 옛날 가시나물에 강시화라는 홀아비가 살았다. 하루는 강시화가 새벽에 수수못에 물을 뜨러 갔다가 은빛 물고기가 떠오른 것을 보고, 집에 가서 지겟줄을 가져다 낚아 올렸다. 강시화는 자신이 귀한 물고기를 잡았다면 온 동네가 떠나갈 듯 자랑을 하였다. 이 물고기를 보려고 모인 동네 젊은이들이 강시화와 물고기를 나누어 먹었는데, 갑자기 강시화는 죽고 나머지 동네 젊은이들도 병들어 앓기 시작했다. 마을에서는 이들을 위하여 15일간 굿을 하였고, 덕분에 동네 젊은이들은 목숨을 구하고 마을도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다.

[조사자] 문시화라고예. 인물 중에 혹시…….

[제보자] 예, 그건 전설 상에 인물이고예. 실제 이름이 아니고예. 문시화 아니라 강시화 아닌가?

[조사자] 강시합니까? 그 얘기 좀 해주십서.

[제보자] 그 수수못에 거 강시화렌 헌 하르방은 홀하르방이랏인디. 아침 새벽에 그 물 뜨레 강 보니까, 그 수수못에 가 보니까. 아, 이 허영한 은빛 나는 물고기가 잇인 거라. 게서 그 집이 강, 집에 지겟줄로 그 꼴랑지 묶어가지고 끗엉 왕. 마을에 이제 하고 갓인디

“아, 저 민물고기 잡았저.”

허멍이, 막 웨멍 가니까. 저 동네 젊은이덜이 모여들 거 아니라. 거 굉장히 컷던 모냥이지, 자기 몸만큼. 아마 거기 살았던 민물고기 같은디. 잘못 우로 떠 놔서 그런 것 같애. 그래서 거 동네에 젊은이덜이

“아, 거 혼 번 구경가자.”

햇어. 거 잡는 것을 보고이, 이렇게 짹- 잡고 뭐 허영 햇는데. 나눠서 나눠들 먹고. 스물오덟 명이 모였어, 막 구경거리로. 고기 잡았던 막 웨멍 뎅기니까. 가

보니까 은빛 나는 고긴데, 백상어엔 마을 사름덜은 백상어엔 허는데. 백상어가 아니고 나 생각은 민물고기 닮아, 민물고긴다.

그 물이 나오는 샘은 이런 쪼그만치만이 속에는 아마 이런 언덕처럼 됨 거 같애. 그게 고기가 살다가 우로 떠올랐는데 이 사름헌테 잡힌 거지.

게 그걸 잡아먹엉 이 강시화라는 하르방이 죽어불었어. 거 얼마 안 뒤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스물오덟 명도 같이덜 병들어가지고 시름시름 허다가. 이건 굿허면 낫는덴 헤가지고 굿을 헤연. 한 십오 일 동안 연속해서 굿을 허당 보니까. 이것이 사름덜이 다 살아나고 좀 펜안해졌던 허는 전설이 나오는 거야.

[조사자] 거 마을 어른들이 그냥 입에서 입으로 하시는 얘기구나예?

[제보자] 어, 거지. 그거는 어디 문중에 촛아봐도 그런 사름이 없어요이. 기록도 없고 시화, 시화엔 헌 하르방은.

- 핵심어: 강시화, 수수못, 은빛 물고기, 가시나물, 굿, 하르방(할아버지), 홀하르방(홀아비), 민물고기